

광주 상반기 청약시장 5만명 '후끈'

올 상반기 광주 지역 주택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거래절벽'이라는 매매시장은 달리 신규 분양은 높은 경쟁률로 인기를 끌며 대비를 이뤘다.

광주·전남 부동산 포털 사랑방 부동산이 광주 지역 청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1~6월 광주에서는 모두 8개 아파트와 3개 오피스텔 등 11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다.

조합원·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2982세대(아파트 1568세대·오피스텔 1414실)의 일반공급 청약접수에 총 5만5839명이 참여해 평균 경쟁률 18.73대 1을 기록했다.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34.57대 1, 오피스텔은 1.16대 1이었다.

올 상반기 가장 화제가 된 단지는 단연 화정 아이파크다.

240세대의 청약 신청을 받은 화정 아이파크 1단지 1만6305명이

11개 단지·2982세대 분양·5만5839명 접수

'화정 아이파크' 67대 1 평균 경쟁률 최고 기록

물려 평균 경쟁률 67.94대 1을 기록했다. 2단지 역시 193세대 분양에 1만2956명이 접수하며 67.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두 번째 인기 단지는 평균 경쟁률 51.19대 1을 기록한 광주 남구 반도유보이다.

특히 이곳은 84A㎡ 25세대 모집에 3561명(해당 지역)이 몰려 142.44대 1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단일 경쟁률로는 올 상반기 광주지역 최고 수치다.

이 밖에 수완 센트럴시티 서브스타일스 25.25대 1(40세대), 주월 대리수 어썸브릿지 15.59대 1(68세대),

용봉동 한국아델리움 비엔날레 2차 11.63대 1(51세대), 어등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6.85대 1(503세대) 등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 아파트 중 역대 최고 분양가로 관심을 끈 빌리브 트레비체는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빌리브 트레비체는 117세대 공급에 605명이 청약에 접수해 5.17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광주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 1순위 조건도 비교적 덜 까다로운 데다 전매제한 기간도 짧고, 대출한도가 높다는 장

점 덕분에 실수요층은 물론 투자수요까지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현웅 사랑방 부동산 팀장은 "일지 여건과 브랜드 파워 등을 앞세운 신규 아파트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기존 주택의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신규 주택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해져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고분양가 단지가 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양상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 가운데 올 상반기 인터넷 청약접수에 나선 광주 3곳 중 2단지만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했다. 이마저도 1.91대 1, 1.59대 1에 그쳤다. 나머지 1곳은 468실 모집에 단 9명만이 신청하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중·대형 SUV 중고차 도매가 평균 4.3% ↑

AJ셀카, 현대차 '베뉴' 출시 앞두고 엑센트도 7% 시세 상승

여름철을 앞두고 중고 중·대형 SUV의 도매가격이 평균 4.3%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유통플랫폼 AJ셀카가 12일 발표한 5월 중고차량 경매 데이터에 따르면 올 뉴 카니발, 싼타페 더 프리임, 그랜드 스타렉스 등 중·대형 SUV의 도매가격이 전월에 비해 크게 올랐다.

말리부(2011년~2016년·휘발유)의 낙찰가가 720~1145만원으로, 전월에 비해 7% 상승했고 싼타페 더 프리임(2015년~2018년·경유) 낙찰가 역시

1455~2082원으로 전월에 비해 7% 상승했다.

올 뉴 카니발(2014년~2018년·경유)은 1445~2940만원으로 전월에 비해 4%, 그랜드 스타렉스(2007년~현재)는 1100~1460만원으로 2% 각각 상승했다.

현대 엑센트 신형도 7% 상승했다. 5월 신모델 '베뉴'로 엑센트 가 단종을 앞두고 되면서 딜러들이 차량 확보에 나선 것이 시세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5월 한 달간 경유와 휘발유 차량 평균 도매 시세는 모두 보합세를 나타냈다.

5G가입자 100만 돌파·기지국 6만1246국...“품질개선 지속”

실내 수신환경 개선 위해 350여 건물 추가 구축 예정



5월31일 기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커버리지.

5G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5G 기지국 6만1246국을 구축했으며,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약속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단말·장비)가 참여하는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TF' 회의를 열어 5G 서비스 품질개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5G 기지국은 지난 10일 기준 6만 1246국(장치 수 14만275개)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8일 대비 기지국은 3980국 증가했고, 장치 수는 1만8586개 늘었다.

5G 가입자 수는 지난 4월 3일 상용화 이후 69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통신사는 5G 실내수신환경 개선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공항 및 KTX 역사, 대형

쇼핑센터 및 전시장 등 전국 120여 개 인구밀집 건물 내에서 서비스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50여개 영화관·체육경기장·대형마트 등을 추가 선정해 하반기 내 시설 공동구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지하철 각 노선별로도 5G 기지국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해 노선별 담당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도 지하철 내 5G 기지국 구축 작업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달 29일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수회에

걸친 소프트웨어(SW) 보안패치 보급과 지속적인 망 연동 최적화를 통해 데이터 끊김현상과 속도저하 등의 문제를 상용화 초기 대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LTE 서비스를 이용 중임에도 단말 상태표시줄에 5G로 표기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단말 패치는 지난달 배포됐으며,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의 약 85% 이상이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푸시 알림 등을 통해 패치 다운로드·적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조사는 국민들의 5G 스마트폰 선택권을 넓히고 5G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3분기에도 다양한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5G 가입자들이 내실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과 적극적인 서비스 다변화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민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스

공기업 직원 3.7% 늘었다

평균급여 1위 한국사회 9209만원

공기업 직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2018년 경영공시 자료 중 정규직 직원 현황을 분석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36개사의 전체 정규직 직원 수는 총 13만9997명으로 2017년 동일기업의 전체 직원 수(12만6331명)보다 3.7%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직원이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로 직원 수 2만8387명을 기록했다. 이어서 ▲한국전력공사(2만985명), ▲한국수력원자력(1만2055명), ▲한국도지주력공사(8671명)순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한국철도공사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직원이 1년 동안 871명 늘었다. 그 다음으로 ▲한국도지주력공사(645명), ▲한국전력공사(439명), ▲한전KDN(436명)도 직원이 큰 폭 증가한 기업으로 꼽혔다. 반면 직원이 감소한 기업은 전체 36곳 중 ▲대한항공(256명), ▲강원랜드(-227명), ▲한국전력기술(-6명) 단 3곳뿐이었다.

한편 2018년 기준, 정규직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국사회였다.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이 9209만원에 달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9048만원)와 '한국전력기술(9011만원)' 역시 정규직 직원 평균 급여가 9000만원 이상으로 높았다.

해남마을기업, 아세안 시장 뚫었다

필리핀 800만 달러 수출협약

해남지역 대표마을기업 팜글햇살찬영농조합법인이 아세안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12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진흥원 회의실에서 팜글햇살찬 영농조합법인과 필리핀체인 필프레쉬사(FIL-FRESH Inc), 진흥원이 3년간 800만 달러의 고구마 원재료 및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팜글햇살찬 영농조합법인은 냉동고구마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고구마 양갱, 애견간식용 고구마발효한 제품을 꾸준히 개발·출시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팜글햇살찬 영농조합법인은 양질의 고구마 원재료 냉동고구마 등 가공식품을 선별해 필프레쉬사에 공급하고 해당업체와 함께 제품 개발 현지공장 설립, 마케팅 및 제품판매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팜글햇살찬 영농조합법인 정대웅



대표는 "그동안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해 온 우리 기업의 노력 이외에도 유용한 지원시책을 잘 활용한 진흥원과 전남TA활용지원센터의 세심한 사전 준비 및 지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랑했다.

팜글햇살찬 영농조합법인은 2013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2015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진흥원 산하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비와 상품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왔으며, 진흥원으로부터 육성자금, 수출·마케팅, 교육·경영컨설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종합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지속해왔다.

김정환 기자

지역공감·의미상조·정문취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